

# 『自警編』의 수용 및 간행 판본 연구

The Acceptance Patterns of the *Jagyungpyun* and the Editions Published in Korea

임기영 (Lim, Keeyou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전존본 및 계통       |
| 2. 편찬 및 내용    | 6. 후속 저술의 편찬 및 유통 |
| 3. 중국의 간행     | 7. 맺음말            |
| 4. 한국 수용 및 간행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는 중국 宋나라에서 편찬되고 간행된 여러 서적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고, 간행의 빈도가 잦았던 판본들에 대한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自警編』의 편찬 및 중국 간행 사실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더불어 중국에 전존하는 판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판본의 유통 정황에 대한 기록을 사료에 따라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전존본의 간행 계통 및 판본의 서지적인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 『自警編』은 조선 초기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이후 17세기 말까지 꾸준한 빈도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朴世采의 증보판 『自警編』으로 알려진 『新修自警編』이 그 수요를 대변하면서, 官이나 私家를 막론하고 주로 유통되었던 정황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판본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조선 후기 私家를 중심으로 『自警編』의 편제를 모방하여 우리나라의 사례로 본문을 채운 후속 저술들도 속속 등장하고 유통되기도 하였다.

要語: 宋版, 『自警編』, 趙善璫, 『新修自警編』, 『續自警編』, 『廣輔自警編』, 『後自警編』

## < ABSTRACT >

This study has been tried as a part of a series of books which have been widely read in Korea and published frequently in publishing and publishing in Song Dynasty. From this point of view, we reviewe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lated records of the compilation of *Jagyungpyun* and the facts of publishing in China, and conducted a survey on the versions existing in China. Then, the records of the publication of the version after the influx into Korea were examined by the feed, and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ublishing system and the version of the previous version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Jagyungpyun* was published at the steady frequency until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fter it was published as the beginning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fter the 17th century, the *Shinsujagyungpyun*, which is known as *Jagyungpyun* edition of Park Se - chae, represented the demand, and it was possible to know the situation that was mainly distributed to the public. Of course, it was not published as a version, but the follow-up writings that filled the text with the example of our country appeared one after the other.

Key words: Books of Song Dynasty, *Jagyungpyun*, Chosunryo, *Shinsujagyungpyun*, *SokJagyungpyun*, *GuangboJagyungpyun*, *HuJagyungpyun*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impussiant@knu.ac.kr)

접수일: 2018년 5월 5일 최초심사일: 2018년 6월 2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22일  
서지학연구, 제74집, 71-105,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71]

## 1. 머리말

이 연구는 중국 宋나라에서 편찬되고 간행된 여러 서적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고, 간행의 빈도가 잦았던 판본들에 대한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특히, 이러한 宋代 간행 서적 중 『自警編』은 중국의 간행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고, 왕실에서는 『大學衍義』와 『貞觀政要』 등의 서적과 더불어 경연에서 강론하는 등 그 활용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리고 조선 초기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뒤, 慶州府 등지에서 목판으로 새기는 등 여러 차례 간행으로 이어졌고, 왕실은 물론 지역 儒士들의 판본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활용 사례가 많고, 간행 빈도가 잦은 宋代 판본을 정리한다는 측면에 착안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自警編』의 편찬 및 중국 간행 사실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중국에 전존하는 판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판본의 유통 정황에 대한 기록을 사료에 따라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전존본의 간행 계통 및 판본의 서지적인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自警編』의 편찬 체제와 찬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후속 저술들이 속속 찬술되었으니, 이 자료들에 대한 편찬 사실 등 관련 기록을 고찰하였다.

한편, 『自警編』에 대한 앞선 연구로, 기관 소장 판본에 대한 해제<sup>1)</sup> 및 국내외 소장 판본에 대한 서지 조사<sup>2)</sup>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尹炳泰에 의하여 『自警編』을 찍은 활자와 그 인본들에 대하여 고증<sup>3)</sup>되기도 하였다.

## 2. 편찬 및 내용

### 2.1 편찬자

이 책의 편찬자로 알려진 趙善璈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傳하여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태어난 생년이나 사망 시점은 알 수 없고, 다만 남송의 理宗이 통치하던 紹定 연간(1228-1234)에

1) 劉冰, “絕世雙璧’ 兩部宋版 『自警編』,” 『圖書館學刊』 2009年 03期, 132.

2) 千惠鳳, “內閣文庫의 한국 고활자본에 대하여,” 『書誌學』 제3호(1970. 5), 39-81.

한국서지학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韓國本 目錄』 (서울: 한국서지학회, 1998).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目錄』 (대전: 同연구소,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 (대전: 同연구소, 2006). 外.

3) 윤병태 著, “秋香堂活字와 그 인본들,” 『조선후기 활자와 책』 (서울: 범우사, 1991), 30-49.

활동한 정도가 알려져 있었다. 한편, 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몇 안 되는 문헌 중 명나라 때 활동하였던 저명한 학자 程敏政(1445-1499)이 편찬한 『新安文獻志』에 따르면, 그의 삶의 이력<sup>4)</sup>을 조금이나마 되짚어 볼 수 있다. 그가 최초로 벼슬을 한 시점은 嘉定 元年인 1208년이었고, 『自警編』의 서문을 작성한 시점이 嘉定 갑신년인 1224년이였다. 또한 『自警編』을 실제 간행하면서 작성한 발문을 기록한 때가 端平 원년(1234) 3월이었으므로, 당시까지는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新安文獻志』에 나타난 그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여 字가 德純이라는 것과 아버지 武節公의 은덕으로 承信郎에 제수되었던 점, 嘉定 원년(1208)에 과거에 합격하여 修職郎이 된 사실 정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 과정 중에 시점은 알 수 없으나 武寧縣의 縣令과 江州의 知事를 역임한 이력 또한 밝혀져 있다. 그 밖에 그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祖父와 高祖父의 벼슬 관력이 일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新安文獻志』가 작성된 15세기 중엽에도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살펴보면, 趙善璈는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일찍이 벼슬에 입문하였음을 가정하더라도 대략 12세기 후반에 출생하여 官歷 기록이 남아 있는 13세기 초반까지는 활동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自警編』의 발문이나 그의 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로 趙善璈 자신이 병이 많았다는 점<sup>5)</sup>과 벼슬을 오래 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내용<sup>6)</sup>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장수를 누리지는 못한 사실이 드러난다.

한편, 『新安文獻志』에 밝힌 사망 당시의 벼슬은 中奉大夫이었으며, 건강상의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벼슬을 관두고 잠시 龜溪에 은거한 시점이 1221년인 辛巳年<sup>7)</sup>이었던 것 또한 原序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결국 그의 저술 또한 『自警編』이 유일하고, 당대의 삶에 대한 행적이나 기록 또한 거의 남아 있지 않아, 趙善璈의 발자취를 자세히 소급하여 살펴보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에 관한 기록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은 학식 깊은 儒士이자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덕망 높은 관료였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4) (文淵閣 四庫全書本) 『新安文獻志』 卷93 「行實」 <趙刑部善璈傳>. “趙刑部善璈字德純祖士…”

5) 중종 14년(1519) 慶州府 刊 『自警編』 戊卷 제113장 제1행. “…予疾多矣却掃八年安之…”

6) (文淵閣 四庫全書本) 『新安文獻志』 卷93 「行實」 <趙刑部善璈傳> 제6행-제7행. “…上意擢用尋以疾畀祠數月卒 官至中奉 / 大夫…”

7) 이후 인용 시 『自警編』의 내용은 전존하는 목판본 중 가장 빠른 중종 14년(1519) 慶州府에서 간행된 판본에 수록된 구절에 의거하였음을 밝혀둔다. 『自警編』 甲卷 제1장 「序文」 제2행-제3행. “…猗歎休哉予辛巳去 / 國屏迹龜溪省愆…”

## 2.2 편찬 시기 및 동기

### 2.2.1 초간본의 편찬 및 간행 시기

13세기 남송의 文士로 대변되는 趙善璪의 저술로 현재 알려진 판본은 『自警編』이 유일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책의 편찬 시기는 그가 학문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던 중·장년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의 생몰년을 적시할 수 없는 탓에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趙善璪가 책의 편찬을 처음 도모한 시점인 1221년<sup>8)</sup> 또한 그의 생평에서 어떤 시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221년은 그의 삶에서 벼슬을 한동안 그만두었던 시기라는 점, 南宋의 수도 杭州를 떠나와서 龜溪에 머물며 은거하면서 삶을 되돌아보던 시기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벼슬을 그만 둔 것은 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추정된다는 사실 정도가 확인된다. 그리고 편찬을 도모한 지 3년이 지난 1224년 1월에는 이 책의 내용이 완성되었던 점<sup>9)</sup>으로 미루어 편찬에 비교적 많은 공을 들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책은 완성된 지 10여년 가까이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 책의 발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찬자 趙善璪는 편찬이 마무리 된 1224년부터 적어도 1232년까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한 시기였다. 그리고 건강 뿐 아니라 벼슬을 하지 않은 탓에 간행의 인력이나 비용 마련 또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뒤 조선료는 다시 벼슬에 복직한 것으로 보이고, 간행을 도모한 1234년 3월에는 九江郡의 군수격인 知事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新安文獻志』의 내용에서도 그의 벼슬 이력 중 후반기에는 江州<sup>10)</sup>의 知事를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요컨대, 趙善璪가 발문을 작성한 1234년에는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郡의 군수를 맡으면서 간행 여건이 충족되어 郡齋에서 목판으로 간행토록 명<sup>11)</sup>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2.2.2 편찬 동기

#### 2.2.2.1 개인적 편찬 동기

개별 저술이나 특정 판본의 편찬 동기는 저자나 편자가 살아온 생애와 그들이 속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편찬이나 간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8) 『自警編』 甲卷 제1장 「序文」 제3행-제4행. “…餘暇集我 / 朝諸公言行越三年而成編名以自警…”

9) 『自警編』 甲卷 제1장 「序文」 제8행-제9행. “…意云嘉靖甲申正月望 / 漢國趙善璪序”

10) 당시 九江郡과 江州는 지금의 安徽省 合肥市 일대로 같은 지역을 일컫는다.

11) 『自警編』 戊卷 권말 제113장 「跋文」 제6행-제7행. “… / 說遂鋟木于九江郡齋端平改元三月旦 / 趙善璪再書”

동기는 판본의 서문이나 발문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고, 이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自警編』의 편찬과 간행 동기 또한 趙善璫의 생애와 더불어 그가 속해 살아온 당대의 문화와 융성한 학문적 분위기, 그리고 판본의 성격상 趙善璫 개인이 편집하고 재원을 조달한 뒤 출판한 사가관의 색깔이 짙은 초간본의 특성, 즉 군수 신분으로 출판을 도모한 당시 출판 환경도 간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自警編』의 편찬 및 간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짚어볼 수 있다. 먼저, 이 책의 편찬에는 趙善璫 개인의 학문적 열정과 깊이가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려서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학문에 매진하였다는 그의 전기가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책의 편찬이 이루어지던 1224년경은 대략 편자의 중년 시기로 여겨지고, 8년 가까이 龜溪에 은거하면서 저술할 여유를 가지며 주변을 되돌아본 때였다는 점도 『自警編』의 편찬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自警編』의 발문에서 밝히 바<sup>12)</sup>와 같이, 편자 자신이 관료라는 공적 신분으로 있으면서, 당시 官吏와 백성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던 公人으로서의 사명감 또한 판본의 편찬과 출판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의 편찬에는 『詩經』의 『大雅篇』<sup>13)</sup>과 당시 유통되고 있던 『典刑錄』<sup>14)</sup>에 수록된 선현들의 귀감이 되는 嘉言과 선행을 본받고자 하였던<sup>15)</sup> 편찬자의 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 2.2.2.2 출판 문화사적 요소

새로운 판본의 편찬이나 출현은 으레 당대의 사회 문화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趙善璫가 관료로 활동하였던 13세기 초 남송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의 시기가 아니었고, 문화적으로 학문적 분위기가 융성하였다. 또한 출판의 관점에서 당시에는 중앙 뿐 아니라 지방의 군단위로 이루어진 왕성한 판각 활동이 이어졌으며, 이 또한 『自警編』의 간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이러한 당대의 분위기는 13세기 國子監이나 왕실 및 崇文院 등 중앙에서 이루어진 국가 단위의 출판 활동은 차치하더라도, 이 시기 간행된 私家版 및 郡齋版 등 지방의 판각 활동 경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宋代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더라도, 출판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판각활동은 단순 수치상 지방에서 판각된 서적의 종수가 중앙의 것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12) 『自警編』 戊卷 권말 제113장 『跋文』 제2행-제3행. “…不愧見吏民皆是編之 / 助也客有好事者從予抄錄予曰畢見諉 / 聞籍是強而進耳…”

13) 『自警編』 甲卷 제1장 『序文』 제1행-제2행. “嘗讀詩之抑衛武公所以自警者凡十二章 / 紬繹辭旨…”

14) 『典刑錄』은 현재 판본이 전하지 않으며, 『文獻通考』, 『國史經籍志』, 『直齋書錄解題』 등의 서목에 12권의 편서에 菴溪 吳宏이 편찬한 것으로 52門으로 되어 있고, 대략 孔子의 『言行錄』에서 내용을 초출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15) 『自警編』 甲卷 제1장 『序文』 제6행-제7행. “… / 成市書徐生售典刑錄嘉言善行疇分品列 / 聞類予所編因廣教育攝養好生使命數門…”

절대 우위를 차지<sup>16)</sup>하고 있다.

또한 『自警編』이 간행된 13세기 초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더라도, 지역을 막론하고 郡 단위의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관의 간행 사례로 그 주체를 府와 州를 제외한 郡 단위의 간행 종수로 드러나는 전존 판본이 40여 종 이상 확인<sup>17)</sup>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적의 주제는 역사서와 개인의 문집 뿐 아니라 儒佛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곧 당시 郡齋<sup>18)</sup>에서는 중앙 못지않게 서적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었고, 이에 부응하여 군수의 주도하에 출판의 여건을 갖춘 郡 단위 판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결과물로 현재까지 다수의 판본이 전존하게 되었고, 간행된 출판 종수는 이 시기 출판 활동 중 郡齋版의 큰 비중으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宋代의 출판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본 바<sup>19)</sup>에 따르면, 전존 판본의 수량 비교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 宋代의 판각 활동 가운데 중앙의 출판 활동을 주도한 단일 출판 주체로 국자감의 출판 종수가 190여 종 알려져 있다. 그에 반해 郡齋版은 86종이 조사되었고, 이 86종의 서적 중 절반인 43종이 13세기 초에 집중 간행된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13세기 초 九江郡의 郡齋에서 간행<sup>20)</sup>된 『自警編』의 출판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당시 왕성하게 이루어진 郡齋 출판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남아 있다.

또 한편으로는 13세기 초 남송의 郡齋版 중에는 유독 선현들의 언행록이나 학습에 필요한 교훈서나 문장 선집 등의 출판 빈도가 두드러졌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시 군재에서 간행된 문헌 중에는 『童蒙訓』, 『習學記言』, 『大易粹言』, 『皇朝文鑒』 등 문장 선집이나 訓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편자 趙善璪 또한 시중에는 諸賢의 嘉言과 선행을 모은 『典刑錄』이라는 책이 판매된다고 밝혀 두어, 이러한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특정 시기나 출판의 주체에 따라 선호되었던 판각의 경향이나 유행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 郡齋에서는 先人들의 문장 선집이나 교훈서 및 언행록 등을 편간하는 것 또한 당시 선호되었던 판각의 한 흐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6) 楊玲 著, 『宋代出版文化』(北京: 文物出版社, 2012), 60-105.

17) 田建平, “宋代書籍出版史研究,”(博士學位論文, 河北大學大學院, 2012), 87-90.

18) ‘郡守之齋’라 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인 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고을의 관아를 일컫는 용어이다.

19) 田建平(2012), 91.

20) 『自警編』 戊卷 권말 제113장 『跋文』 제6행-제7행. “…予嘉其 / 說遂鋟木于九江郡齋端平改…”

## 2.3 본문의 구성 및 수록 내용

### 2.3.1 본문의 구성

『自警編』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은 趙善璈가 서문에 밝힌 바와 같다. 즉, 편자는 책의 서문에서 諸公들의 언행을 選集하였고, 이를 敎育과 攝養, 好生과 使命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본문에 배치하였다 한다. 이로 미루어 『自警編』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宋代 諸賢의 언행을 모아서 편집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수록된 본문의 구성 및 내용은 8개의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전존 판본들을 두루 살펴보면, 책의 편철 및 구성은 5권 5책본, 9권 6책본, 9권 10책본 등 아주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록된 내용은 일관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된 8개의 대분류 아래에는 57개의 소주제로 세분되어 있다. 대분류에 따른 소주제별 수록 순서는 學問類로 學問, 見識, 器量, 操修類로 正心, 檢身, 誠實, 操守, 定力, 清廉, 儉約, 無嗜好, 謹言行, 韜晦, 攝養, 好生이 이어진다. 연이어서 齊家類로 孝友, 敎子孫, 賑親族, 居處와 接物類로 交際, 君子, 小人, 樂善, 敎育, 厚德, 報德, 不報, 婚葬, 出處類는 出處, 義命, 恬退, 患難, 休致로 나누었다. 그리고 事君類는 분량이 많은 탓에 上下로 다시 나누어 上篇에는 忠義, 公正, 德望, 得體, 講讀, 諫諍의 6개 영역을 다루고, 下篇에는 憂國, 薦舉, 用人, 善處事, 使命을 수록하였다. 또 政事類에는 政事, 鎮靜信, 通下情, 濟人, 救荒, 救弊, 辨誣, 獄訟, 財賦, 兵, 制勝을 배치하고, 마지막 拾遺에서는 議論, 報應을 두었다.

다만, 특기할 점은 일반적인 문장 선집본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수록된 내용들 중 편자 趙善璈의 주장이나 글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처럼 본문에 게재된 모든 문장들은 인용하거나 발췌한 것이어서, 저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포함된 著書나 撰述書와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밝혀 둔다.

### 2.3.2 수록 내용의 출처

이처럼 수록된 문장이 모두 발췌되거나 기존 저술에서 인용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自警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는 인용된 문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自警編』의 인용 문헌과 그 저자 및 수록 작품의 빈도를 개략적으로 살펴 판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自警編』 전반에 수록된 여러 문장들은 당대 또는 후대의 문집을 비롯한 각종 저술에 누차 재인용되었던 사례가 확인되는 물론이다.

『自警編』 본문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권차별 본문의 편성 분량은 시대나 간행 판본에 따라

상이하나, 소주제별 편성 순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에 제1권에 해당하는 「學文類」는 111개의 인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이은 「操修類」는 196개, 齊家類 49개, 接物類 135개, 出處類 70개, 事君類 354개, 政事類 192개, 拾遺 14개의 인용 문단으로 총 1,121개의 비교적 방대한 분량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인용 단락이 모두 1,121개라는 수치는 원문이 발췌된 문헌별 인용 문단을 기준으로 해야 된 것이다. 초주갑인자본을 번각한 중종 14년(1519)본의 경우 인용 문헌별 단락의 시작을 擡頭로 확연히 구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引用書 구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문을 구성하는 인용된 문헌들의 출처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自警編』의 편찬 시점보다 빠른 13세기 이전 儒家書類 또는 朱子の 「言行錄」이나 당시 유통된 저명한 문사의 문집류 등에서 주로 발췌하였을 것이라는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본문의 출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용 문헌은 모두 30여 종 넘게 나타났고, 이 가운데 2회 이상 인용된 문헌으로는 朱子(1130-1200)의 『三朝名臣言行錄』과 『五朝名臣言行錄』이 단연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朱子의 두 언행록의 인용 사례는 전체 본문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췌되었고, 그 밖에 3회 이상 본문의 내용이 인용된 문헌으로는 『邵氏聞見錄』, 『樂庵語錄』, 『上蔡語錄』, 『二程遺書』, 『言行龜鑒』, 『呂氏童蒙訓』, 『尹和靖語錄』, 『仕學規範』, 『橫浦集』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인용 문헌의 자세한 인용 부분과 인용 빈도 및 저자나 인용 문헌의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따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만, 引用書의 외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주자의 「言行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인용 문헌의 저자는 尹和靖, 程頤, 張九成, 謝良佐, 邵博, 邵伯溫, 龔昱 등 주로 10-12세기 인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편자 趙善璪가 활동한 시대에 자신이 직접 읽었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에서 우선 그 내용을 취하였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문의 편성 상 소주제별 인용된 문장의 배열을 살펴보면, 편성 순서의 측면에서 세부 주제에 따른 인물 선집 또는 인용 대상이 된 저자의 생몰년 등에 따른 배치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주제별 본문의 할당이나 인용문의 편성에 있어서 시대나 인물에 따른 구분이나 범주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책이 편찬되었던 13세기 남송의 사회와 문화 질서 전반에서 드러나는 朱子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이 시기 학문의 전반적인 조류는 문치주의와 유학 진흥의 일환으로 경학의 계승이라는 흐름으로 대변되고, 여기에 주자학을 빼놓고는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인용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自警編』의 편찬에 있어서도 朱熹(1130-1200)가 집대성한 특정 저술들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 3. 중국의 간행

#### 3.1 사료에 나타난 유통 기록

13세기 초경에 내용이 완성되어 판본으로 간행<sup>21)</sup>되었던 『自警編』은 초창기에는 간행 지역을 중심으로 간본의 형태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판본의 유통 정황을 뒷받침하는 실물 자료가 전존하기도 하고, 사료나 기록에 전하는 판본에 대한 유통 기록 또한 남아 있다. 예컨대, 판본이 완성되기 전인 송나라 12세기 이전 완성된 관찬 서목으로 『崇文總目』이나 『中興館閣書目』, 사가 서목으로 『遂初堂書目』 등에 『自警編』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은 자명하다. 또한 『自警編』의 편찬 및 간행 시점 이후 남송의 대장서가이자 목록학자 陳振孫(1183-1261)이 작성한 『直齋書錄解題』에 판본이 기재되지 않은 점은 이 판의 간행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로는 판본을 출판한 시기와 초창기 간행 장소가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관찬을 도모하여 유포한 판본이 아닌, 郡에서 사사로이 새긴 사가관의 성격이 강하였던 탓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물론, 판본이 간행되어 유포되고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 초창기 시점이었으므로, 목록학자이자 대장서가라 하더라도 陳振孫이 당시까지는 판본을 구해보지 못하였던 정황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다.

이후, 14세기 들어 14세기 중엽 완성된 『宋史』 『藝文志』에는 이미 판본의 서명이 등장<sup>22)</sup>하고 있으며, 또한 남송과 북송의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편성한 관찬 사료의 성격이 짙은 『宋會要』에서도 여러 차례 『自警編』에 수록된 글을 인용한 사례<sup>23)</sup>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관찬 사료에 서명이 인용된 정도로 미루어 14세기 이후에는 판본의 간행과 더불어 활발히 유통되었던 정황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명나라로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어, 관찬 사료로 『大明實錄』에는 15세기 중엽 交城의 王美垞이 『國朝禮制集要』와 『自警編』 등의 책을 임금께 청하였던 바, 당시 임금 英宗(1427-1464)은 이를 허락하여 내려준 기록<sup>24)</sup>이 전하기도 한다. 또한 『明史』에도 수차례 서명이 인용된 것을 비롯하여, 16세기 이름난 장서가인 高儒의 장서 목록으로 嘉靖 19년(1540) 완성된 『百川書志』에도 『自警編』 1권이 소장<sup>25)</sup>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高儒의 서목 기록으로 미루어, 자신이 소장하였던 판본은 서발이 누락된 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16세기 후반 萬曆 14년(1586) 王圻(1530-1615)에 의해 편찬된 『續文獻通考』의 『經籍考』<sup>26)</sup>에도 『自警編』 3종이 수록되

21) 초간본의 발문 작성 시점인 1234년 3월(端平 改元 三月).

22) 『宋史』 『藝文志補』 <子部>. “趙善璪自警編九卷字德純宗室居於…”

23) 『宋會要』 『職官』 第77. “…出自警編王素傳素 / 累官至…” 외 다수.

24) 『英宗睿皇帝實錄』 卷278, 天順元年(1457) 5월 9日條. “…交城王美垞奏求國朝禮制集要自警編文選史記兩漢詔令 上命給之…”

25) 嘉靖 19년(1540) 撰 『百川書志』 <德行類>. “…自警編 八卷 / 不知作者亦無序說續考張琳曰宋趙公善璪所編 / …”

어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明代 저명한 장서가 祁承(1562-1628)이 소장하였던 9천여 종 10만여 권의 장서 목록인 『澹生堂藏書目』에도 3종의 『自警編』을 포함되었던 사실<sup>27)</sup> 또한 확인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乾隆 연간에 작성된 관찬 서목으로 『天祿琳琅書目』에 의하면, 乾隆 9년(1744) 황실의 昭仁殿에는 13세기 宋代의 간본으로 여겨지는 8책본과 14책본의 『自警編』과 元代 판본으로 간주되는 10책본 『自警編』 총 3종이 소장<sup>28)</sup>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목에서는 이 판에 대하여 찬자와 전래 경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또한 부기되어 있다.

그 밖에 明代 張萱 등이 찬한 『內閣藏書目錄』과 『萬卷堂書目』을 비롯한 清代의 『天一閣書目』, 『文淵閣書目』, 『千頃堂書目』 등 여러 장서 목록에 『自警編』의 소장 정황이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시인이나 여러 문사들의 문집에서도 판본의 소장 및 인용 사례가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王士禛(1634-1711)의 『帶經堂集』을 비롯하여, 18세기 山東 益都의 관리이자 장서가로 잘 알려진 南澗 李文藻(1730-1778)도 자신이 溫公이 宋槧本을 抄寫한 『自警編』을 읽은 기록<sup>29)</sup>을 남겨 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陸心源(1834-1894)은 송판 『自警編』을 직접 소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문집에서 자세한 해설<sup>30)</sup>을 가해두기도 하였다.

비단 중앙의 관찬 사료와 書目類 및 文集, 文獻志를 막론하더라도, 『開封府志』나 『徽州府志』, 『廣州府志』, 『寧夏府志』 등 지방 단위로 작성된 각종 郡誌나 地方志에도 판본의 유통 및 소장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곧 『自警編』 초간본이 13세기 초 출판된 이후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꾸준히 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 3.2 전존본

### 3.2.1 端平 元年(1234) 九江郡齋本 (南宋本)

이 남송 연간에 간행된 판본은 중국과 일본 등 몇몇 소장처에서 확인된다. 특히, 일본의 靜嘉堂文庫 소장본 『自警編』에 대하여 長澤規矩也<sup>31)</sup>는 인본의 조사를 통해 이 판의 판각에 참여한 人中,

26) 萬曆 14년 王圻 撰 『續文獻通考』 권178 『經籍考』 <雜家 下>. “…趙善瑋自警編九卷 / 善瑋太宗七世孫家于海南端平中嘗知江州 / …” 외 2종.

27) 17세기 寫 『澹生堂藏書目』 <史部>. “…自警編 八卷 趙善瑋 又一部九卷四册 / 批評自警編 八卷 / 續自警編 十六卷 十六册 黃希憲 / …”

28) 中華書局(1995년) 影印本 『天祿琳琅書目』 卷5 『宋版子部』 및 『元版史部』. “自警編 二函八册 / 見前小字本無善瑋後序分十一卷每葉版心以 / 八音分册…” 외

29) 李文藻 著 『南澗文集』 卷上 <琉璃廠書肆記>. “…皆鈔本自警 / 編半部溫公書儀一部皆宋槧本又方…”

30) 『儀顧堂集』 卷20 <宋板自警編跋>. “…不分卷每行二十行行二十字語涉宋帝皆提行宋 / 諱或缺或否前有…”

31) 長澤規矩也, 『長澤規矩也著作集 第三卷 - 宋元版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83), 132-156.

子秀, 友民, 文恕, 文民 등 48명의 각수명을 밝혀둔 바 있다. 더불어 靜嘉堂文庫 소장본에 대한 도판과 자세한 서지 사항을 기록한 바<sup>32)</sup>에 따르면, 판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不分卷 4册, 左右雙邊, 匡廓: 21.6×15.8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책크기: 26.9×18.5cm (句點 聲點 附刻)

그리고 도록에서는 이 판에 대하여 초간본이 아닌 初刻 이후의 遞修本으로 판단하였다. 채수본 판단의 근거는 인본에 기록되어 있는 唐乙子, 唐乙民 등 새겨진 각수명에 의존하였다. 그 밖에 날인된 장서인으로는 墨林山人, 子京父印, 天籟閣 등 14기의 도장이 권수와 권말에 찍혀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판본이 중국의 국가도서관에 소장<sup>33)</sup>되어 있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초간본의 발문에는 ‘…遂鋟木于九江郡齋端平改元三月旦趙善璪再書’라는 간행 시점에 대한 기록이 명기되어 있다. 한편, 이 판본의 후대 보각본도 중국 국가도서관에 실물 자료가 남아 전하며, 판본에 기재된 刻工들은 상당 수 일치하지만 판각 시기는 明代에 초간본을 토대로 새기되 일부는 중각된 것<sup>34)</sup>으로 여겨진다.

### 3.2.2 洪武 27년(1394) 蜀藩刻本

國立故宮博物院圖書館에 소장된 12책본<sup>35)</sup>으로 남송본의 遞修本으로 알려져 있다. 고궁박물관의 목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판본의 형식이 나타난다.

序跋: 卷首有〈序〉/嘉定甲申正月望漢國趙善璪序。

卷末有〈跋〉/九江郡齋端平改元年三月旦善璪再書。

高廣: 22.5×16.3mm, 版式: 左右雙欄, 版心白口, 雙魚尾, 中縫中記自警編卷次,

下記葉次及刻工名. 行格: 十行, 行二十字, 小字雙行, 字數同。

刻書地/出版地: 蜀藩

刻工名: 子秀(子), 梅保(保), 苟道民(道民), 苟刊, 文民, 友民, 祖, 謝友, 帥, 王必文(必文),

胡文(胡), 志才, 志中刊, 早成, 早目(目), 龍, 吳, 如, 向, 人中(人), 禹, 易,

韋五, 韓五, 云, 周宗貴(周, 周宗, 宗貴), 文恕, 奩才, 何, 劉, 塗, 朱, 徐, 陳,

呈二, 隆, 李, 文只(只), 史

收藏印記: 「京師圖書館收藏之印」朱長

32) 靜嘉堂文庫 編, 『靜嘉堂文庫宋元版圖錄(解題篇)』(東京: 汲古書院, 1992), 44.

33) 중국국가도서관 장서: 308-07570.

34) 중국국가도서관 장서: 308-07568.

35) 國立故宮博物院 장서번호: 故善 008134-008145.

다만, 목록된 내용으로 미루어 남송본의 각수명은 그대로 새겨졌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 판본의 인출 시기에 대하여 ‘明洪武二十七年蜀藩刊後印本’이라 밝혀두어, 1394년 蜀府本の 後印으로 판단하였다. 遞修 시기의 판정은 권수에 있는 洪武 27년(1394) 漢中府 儒學教授 方孝孺(1357-1402)가 작성한 서문에 의거하였다.

### 3.2.3 弘治 15년(1502) 蜀府 翻刻本

이 판본은 상기 洪武 연간 蜀藩刻本の 번각본으로 中國國家圖書館<sup>36)</sup> 등에 소장되어 있다. 9권본으로 흔히 ‘嶺表刻本’으로 불리는 이 판본은 여타 기관에서는 명초 각본(1368-1424)으로 목록되어 있거나, 간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판의 형식은 앞선 1394년 蜀藩本을 번각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판본의 형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每葉 十行, 行二十字, 小字雙行, 白口, 雙魚尾, 左右雙邊  
匡高 21.4cm, 廣 15.4cm,  
版心 下: 刻工名(苟道民, 謝友, 梅保, 王必文, 劉志忠, 子秀, 周宗, 宗貴 등)  
藏書印: 「鐵琴銅劍樓」, 「恬裕齋藏」, 「瞿秉淵印」, 「瞿秉冲印」, 「良士眼福」,  
「犀雅堂印」, 「瞿啓科印」 등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명초 간본의 경우 소장 기관이나 기관의 각종 목록 상 판본의 선후 관계 및 간년 비정의 오류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번각과 遞修를 거듭하였던 점과 체수본의 경우 원본과 그 차이가 크지 않는 점, 그리고 새길 당시 초간본의 刻手名을 그대로 새긴 탓에 기관에 따라서 판각 시기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각 기관의 목록상에서도 판각 시점의 비정이 착잡되어 혼란이 야기된 사례이다. 물론, 이와 같은 오류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遞修本의 특성 상 본문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으면, 그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탓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2.4 嘉靖 7년(1528) 蜀府 重刻本

이 판본은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이다. 기관의 판본 목록에 따르면, 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36) 중국국가도서관 장서: 6912.

題名与責任 自警編 [善本] : 五卷 / (宋)趙善璪輯  
版本項 : 刻本  
出版項 : 蜀藩, (明)嘉靖 7年[1528]  
载体形態項 : 5册  
相關附注 : 10行20字, 白口, 左右雙邊, 匡高 21.2cm× 廣16.0cm,  
版心下 : 苟道民, 謝友, 梅保, 必文, 文民, 子秀 等  
著者 : (宋)趙善璪 輯  
索書号 : 13847

이 판의 권수에는 趙善璪의 原序와 後序는 물론, 方孝孺가 작성한 홍무 27년(1394)의 서문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嘉靖 戊子年(1528) 10월에 適菴이 쓴 서문과 趙鶴이 쓴 ‘書重刊自警編後’가 붙어 있어서, 간행 시기가 비정되었다. 판본의 서문 말미에는 「希聖」, 「皇帝宗派」, 「聖神文質之裔」, 「乙亭田氏藏書之印」 등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3.2.5 그 밖의 판본

이 밖에도 명대 간본으로는 奉天圖書館에 소장된 嘉靖 19년(1540) 三山 小泉 林庭楫<sup>37)</sup>이 증각한 9권본의 『自警編』을 비롯하여, 嘉靖 24년(1545) 唐曜가 새긴 9권본 『自警編』, 嘉靖 40년(1561) 大理 刻 『自警編』은 모두 私家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16세기 후반의 판본들로 陳善이 서문을 작성하고 莊一俊이 발문을 쓴 萬曆元年(1573) 瑞州府 刊本<sup>38)</sup>과 萬曆 4년(1576) 狀猷堂刻本을 비롯하여 만력 5년(1577) 李超刻本,<sup>39)</sup> 萬曆 丙戌本(1586)<sup>40)</sup>과 明版本으로 간기 미상본 수 중<sup>41)</sup> 등 明代에만 10여 차례 이상의 간행 사례가 있었다.

이들 판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실물 자료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본문의 계통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목록에 나타나는 기록으로 판단하면 초간본의 간행 이후 남송본의 단일 계통으로 그 맥락이 이어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판본이 새겨진 간행 장소는 일부 관청이나 사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본문의 편성에는 5卷本, 9卷本 등으로 나누어졌으나, 이는 수록 내용이 아닌 한 권당 편성된 본문의 분량 차이로 여겨진다.

그 밖에 기관이나 각종 목록에 따르면, 清代에 이르러서도 四庫全書本은 물론, 康熙 19년(1680)

37) 명대 官員으로 생몰년 미상, 弘治 13년(1499) 進士로 입격하여, 嘉靖 14년(1535) 工部尙書를 지냄.

38) 國立故宮博物院圖書館: RB0018625.

39) 중국국가도서관 장서 번호: A00483.

40) 중국국가도서관 장서 번호: 15266-0068.

41) 國立故宮博物院: 故善 008122-008133 외.

宋實穎 발문본, 雍正 6년(1728)본, 乾隆 43년(1778)의 王允禮 舊藏本 등 『自警編』은 여러 차례 더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4. 한국 수용 및 간행

중국에서 『自警編』 초간본의 간행은 1234년 3월에 이루어졌고,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판각된 초간본 일부가 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판본이 새겨지거나 유통되면, 그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유입된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다만, 『自警編』의 경우 고려시대의 사료나 기록은 전하지 않고, 또한 전존 판본의 간행이나 유통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 왕명에 따라 초주갑인자로 간행되는 등 판본의 활용 정확이 다수 나타나므로, 이 장에서는 유통과 간행의 측면에서 『自警編』 관련 기록을 사료에 따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1 한국의 유통

###### 4.1.1 관찬 사료에 수록된 판본의 유통 기록

조선시대 『自警編』의 유통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세종조에 나타난다. 세종 23년(1441) 왕은 鄭麟趾(1396-1478)에게 『治平要覽』의 편찬을 명하면서, 임금 자신이 『自警編』을 읽어보니 가언과 선행을 節로 나누어 類에 따라 편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自警編』에서는 특히 簡要에 힘을 써서 사람들이 즐겨보도록 배려한 것이라 언급하고 『治平要覽』 또한 관람하기 편하도록 편찬<sup>42)</sup>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예종조에는 經筵의 자리에서 『大學衍義』와 『自警編』, 『貞觀政要』 등의 서적을 강<sup>43)</sup>하였던 정황을 밝혀두었고, 성종 13년(1482) 2월에는 梁誠之(1415-1485)가 『高麗史』, 『自警編』, 『東國輿地勝覽』 등의 서적을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임금에게 건의<sup>44)</sup>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梁誠之의 요청은 그 해(1482) 3월의 기록으로 미루어 바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성종 13년(1482) 3월에는 임금이 『自警編』을 간행하도록 명<sup>45)</sup>하였다. 이는 梁誠之(1415-1482)의 건의에 부응한 왕의

42) 『世宗實錄』 권93, 세종 23년(1441) 6월 28일 癸巳條. “...予近觀宋儒所撰自警編嘉言善行分節類編而務於簡要...”

43)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1469) 6월 29일 辛巳條. “...御經筵畢講通鑑次講大學衍義自警編貞觀政要宋元節要大明君鑑...”

44) 『成宗實錄』 권138, 성종 13년(1482) 2월 13일 壬子條. “...臣竊觀弘文館有自警編五册趙宋宗室善璟所撰也一代君臣嘉言善行實著于此...則簡而有要乞命印出特垂一覽幸甚...”

응답으로, 이러한 임금의 지시는 바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왕명으로 간행 지시가 하달된 판본들 중 일부는 중앙에서 목판으로 새겼으며, 또 일부는 성종조에 통용되었던 初鑄甲寅字나 乙亥字의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에는 판본에 간기가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왕명으로 간행 지시가 있었던 『東國史略』 등 여러 판본들 중 초주갑인자로 찍은 후기 판본들이 여러 종 남아 있어서 설득력을 더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황과 실물 자료 또한 남아 있기도 하다. 즉, 실록의 기록 뿐 아니라 중종 14년(1519) 경주부에서 갑인자판을 번각한 간본의 발문 내용<sup>46)</sup>에 따르면, 성종 13년(1482) 3월 왕명으로 새겨진 판은 校書館에서 초주갑인자로 새긴 것임을 확정할 수 있다.

한편, 16세기 중엽 仁宗 또한 『近思錄』과 『自警編』 등의 서적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열독<sup>47)</sup>하였고, 仁順王后도 밤이 깊도록 『大學衍義』와 『自警編』 등의 서책을 열람하고 이튿날 닭이 울 때까지 심취<sup>48)</sup>하였다.

이 밖에도 숙종 4년(1678) 司憲府에서는 啓를 올려 崔錫鼎(1646-1715)을 귀양보낼 것을 청하며 『宋朝名臣錄』과 『自警編』에 수록된 선례를 인용<sup>49)</sup>하기도 하였고, 숙종 6년(1680) 죄인 尹鑄(1617-1680)의 공초시에도 『名臣言行錄』과 『自警編』의 구절을 援用<sup>50)</sup>한 사례가 있다.

그 외 『承政院日記』와 『內閣日曆』 등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왕실에서 『自警編』을 통한 경연이나 강독한 사례가 다수 남아있고, 『自警編』의 간행이나 주자소의 활자를 사용한 판본의 인출 관련 기록과 완질을 맞추기 위한 부족분의 謄寫 기록 등 다양한 내용들이 전하기도 한다.

#### 4.1.2 책판목록에 수록된 판본

책판 목록에 기록된 목판의 지역 소장 유무는 판본의 간행 정황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이에 『自警編』 책판을 소장한 지역은 慶州와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 지역인 金溝의 두 곳으로 나타난다.

45) 『成宗實錄』 권139 성종 13년(1482) 3월 13일 辛巳條. “…命刊自警編…”

46) 중종 14년(1519) 慶州府 刊 『自警編』 卷末 「金安老跋」.

47) 『仁宗實錄』 권2, 「仁宗大王墓誌文」. “…尤念大學衍義近思錄自警編等書手未嘗釋…”

48) 『明宗實錄』 권1, 명종 즉위년(1545) 7월 21일 己巳條. “…尤至夜深端坐大學衍義自警編近思錄等書披覽翌日雞鳴而起…”

49) 『承政院日記』 제14책 숙종 4년(1678) 윤3월 9일 己酉. “…且其所謂尹鑄悖理之說者即指其當日筵中照管之語也此出於宋朝名臣錄及自警編承事照管…”

50) 『肅宗實錄』 권9, 숙종 6년(1680) 5월 12일 庚子條. “…鑄供稱照管二字本出於宋朝名臣言行錄及自警編體府建立之事…”

<표 1> 책판목록에 수록된 『自警編』

책판 목록	목록의 간사시기	책판명	책판 소재지	내용
攷事撮要	1576년(乙亥字本)	自警編	慶州	·
攷事撮要	1576년(乙亥字飜刻)	自警編	慶州	·
攷事撮要	1585년(木版本)	自警編	慶州	·
攷事撮要	1585년(筆寫本)	自警編	慶州	·
古書冊板有處攷	1700년경(筆寫本)	自警編	慶州	壯紙貳十捌貼墨貳丁
冊板置簿冊	1740년경(筆寫本)	自警編	金溝	白紙十四卷
三南所藏冊板	1743년(筆寫本)	自警編	東京(慶州)	·
完營冊板目錄	1759년(筆寫本)	自警編	金溝	白紙十五束十丈
古冊板有處攷	1780년(筆寫本)	自警編	金溝郡	板子二百七十五立內九立朽傷在二百六十四立
古冊板有處攷	1780년(筆寫本)	自警編	慶州郡	壯紙貳十捌貼墨貳丁

이러한 기록 중 선조 9년(1576)刊 『攷事撮要』에 수록된 『自警編』은 중종 14년(1519) 慶州府尹 金安老(1481-1537)가 주관하고, 慶尙監司 韓世桓(1470-1522)이 자금을 대어 경주부에서 판각한 판본이라는 점에는 일말의 이견이 없다.

한편, 1740년경 필사된 『冊板置簿冊』 등에 수록된 金溝縣의 『自警編』에 대한 기록은 『金溝縣邑誌』의 冊板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金溝縣邑誌』의 내용에 따르면, 275판에서 9판이 훼손되어 264판이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고 밝혀두었다. 이와 같은 책판의 수량은 양면 판각을 전제로 하였을 때, 慶州府에서 간행한 5권본 『自警編』 완질의 수량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곧 후술할 인본의 검토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鄭萬和가 간행을 주도하고 宋時烈(1607-1689)이 발문을 작성한 소위 ‘宋時烈 跋文本’의 분량과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결국 金溝縣의 책판이 현존하지 않아 명확히 단정할 수 없으나, 이 책판은 鄭萬和(1614-1669)가 全羅監司로 재직하던 시절 임금에게 올려 御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현종 5년(1664)에 새긴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自警編』의 수록 분량이 사가에서 쉽게 새길 만큼 적은 분량이 아니라 官力의 지원<sup>51)</sup>이 필요로 하였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읍지가 작성된 시점은 판이 새겨진 뒤 10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일부판은 ‘朽傷’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추정에 일관성을 더한다.

#### 4.1.3 서책 목록에 수록된 판본

책판 목록과 더불어 판본의 직접적인 소장 및 유통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서책 목록이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서책 목록의 경우, 수록된 판본의 간행 시기나 版種을 명시한 사례가 드물어, 문헌의

51) 당시 호남 관찰사격인 全羅監司를 맡고 있는 鄭萬和의 지시와 조력.

간행 시기 등 판본에 관한 서지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판 목록이 간본의 출판과 맞물려 판본 간행의 상한 시기를 비정하거나 판각 장소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면, 이는 서책 목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서책 목록 또한 해당 書目에 수록된 판본의 간행 시기 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특정 서목에 수록된 판본의 간행 시기는 적어도 서책 목록보다는 빠른 시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개별 판본의 간행 시기 하한선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관계는 역으로도 성립되어 서책 목록의 간행이나 필사 시점을 알고자 할 때, 목록에 수록된 有刊記 판본의 기재 유무로 목록의 작성 시점을 소급하여 추정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필사 서목을 비롯하여 현전하는 50여 종의 개인 또는 기관 소장 서목 가운데 『自警編』 판본을 수록한 목록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서책 목록에 수록된 『自警編』

서책 목록 (작성연도)	서명	보관처	내용	비고
西序書目籤錄[1792년]	自警編	奎章閣 西庫	三部 各五本 宋趙善璫	丙庫 子部
西序書目草本[1795년경]	自警編	西庫	三部 各五本 宋趙善璫撰	東洋文庫本
西序書目草本[1795년경]	自警編	西庫	三部 各五本 宋趙善璫撰	狩野文庫本
西庫藏書錄[1865-1866]	自警編	西庫	三件 各五册 鑄 宋趙善璫編	儒家類
西庫書目(1868)	自警編	西庫	二件 各五册 鑄 宋趙善璫編	子部 儒家
西序書目草本(1912)	自警編	규장각 西庫	三部 各五本 宋趙善璫	淺見文庫本
春坊藏書總目(1915)	自警編	春坊	一帙 伍册	儒家類
朝板圖書目錄[1912년 이후]	自警編	宮內府 (朝鮮總督府)	二[帙] 5[册] 人寫本	.
嶺南各邑校院書冊錄[고종연간]	自警編	慶州府	五卷	.
朝鮮書籍目錄[1910년 이후]	自警編	미상	二十册	한중연본
淸芬室書目(1944)	自警編	李仁榮 소장	九卷 五册 / 宋趙善璫編中宗十四年乙卯慶州刊本...	.
古鮮冊譜(1944.04)	自警編	前問恭作 조사 또는 본인소장	九卷本 宋趙善璫編... 板慶州府藏... 의 5종 七卷本 嘉靖甲辰白雲洞...	.
李朝書院文庫目錄(1969)	自警編	玉山書院	6册 1519年 金安老跋	.
		三溪書院	4册 木板本	.
		臨阜書院	7册 木板本	.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규장각의 西庫에는 『西序書目籤錄』 등 18세기 말까지의 서목에 따르면, 『自警編』은 모두 3帙이 있었다가 19세기 후반 장서각본 고종 5년(1868) 『西庫書目』에서 2帙로 줄어든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서목의 기록만으로 추정하면 春坊으로 이속되었다가, 1900년대 이후 다시 규장각 西庫로 합쳐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한편, 고종 5년(1868) 『西庫書目』에 나타난 『自警編』이 고종 13년(1876) 작성된 『西庫書目』에는 어떠한 연유로 누락되었다. 또한 여러 서목의 조사에서 고종 5년(1868) 『閱古觀書目』 등에는 중국본 『自警編』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기재되지 않은 것은 재차 짚어볼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李仁榮(1911-미상)의 장서에도 중종 14년(1519) 慶州府 간본이 완질을 갖추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古鮮冊譜』의 목록에 따르면, 前間恭作은 당시의 조사한 내용인지 본인이 소장하였던 판본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慶州府版과 현종 5년(1666) 宋時烈 발문본 등 8종의 『自警編』 판본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5책본으로 된 筆寫本 2종도 포함되어 있다.

#### 4.1.4 문집 및 읍지 등 기타 사료에 기록된 판본의 유통 기록

『自警編』의 유통에 관한 이른 기록으로 周世鵬(1495-1554)이 중종 39년(1544) 편찬한 『竹溪志』의 내용<sup>52)</sup>을 들 수 있다. 즉, 이 시기 紹修書院에는 장서 43종 525책<sup>53)</sup>을 소장하고 있었고, 당시 書院에 소장된 7冊本<sup>54)</sup> 『自警編』은 현전하는 ‘甲·乙·丙·丁·戊卷’의 5권 7책본 『自警編』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판본이 현재 서원에 전존하지 않아<sup>55)</sup> 성종 13년(1482) 왕명으로 간행된 초주갑인자 활자본인지, 중종 14년(1519) 慶州府에서 새겨진 목판본인지는 현시점에서 명확히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竹溪志』가 편찬되기 한 해 전인 중종 38년(1543) 4월에 『春秋胡氏傳』과 『自警編』, 『書傳』을 慶州府에서 인쇄하여 서원으로 보내어 줬다는 藏書記<sup>56)</sup>가 남아 있으므로, 소수서원에 소장된 판본은 경주에서 새긴 목판본으로 여겨진다.

한편, 慶州府尹 金安老의 『自警編』 간행 사실이 그의 문집에 기록<sup>57)</sup>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되는 부분이다. 그 밖에 조선시대 文士들이 『自警編』을 즐겨 읽고, 이를 인용한 정황은 여러 문집에 무수히 등장<sup>58)</sup>하고 있다. 또한 成倪(1439-1504)은 『慵齋叢話』에서 성종조의 문예와 학문 부흥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지적하고, 당시 『古文選』, 『唐書』를 비롯하여 『朱子書』와 『自警編』 등의 책을 간행한 사실을 적시<sup>59)</sup>해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실록의 기록과도 그 맥을

52) 중종 39년(1544) 撰 『竹溪志』 『藏書錄四』의 <白雲洞書院藏書>. “...大學衍義 拾貳卷 / 名臣言行錄 拾柒卷 / 自警編 柒卷 / 通鑑 拾伍卷 / 文選 拾伍卷...”

53)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31집(2005. 9), 316.

54) 당시 표기는 ‘卷’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관점에서는 수량 파악 시 ‘冊’의 의미로 간주됨.

55) 南權熙 編, 『紹修書院 所藏 古書目錄』 (영주: 소수서원, 1998).

56)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51 및 同書 藏書記 “嘉靖二十二年二月...慶州府尹林公鵬印送胡傳春秋書傳自警編三書...”

57) 筆寫年 米尙 『希樂堂文稿』 卷5의 「志」 제37장 <跋自警編>. “嘗觀趙公善璿自警編語簡而跡備事近而用切...”

58) 李晬光(1563-1628) 撰 仁祖 12년(1634) 刊 崇禎本 『芝峯類說』 권5 『儒道部』의 <格言> 외.

59) 중종 20년(1525) 寫 『慵齋叢話』 권2. “...成廟學問淵博...東文選輿地要覽東國通鑑又命校書館無書不印...四傳春秋前後漢書晉書唐書...自警編杜詩王荊公集陳簡齋集此余之所記者其餘所印諸書亦多...”

같이 한다. 그리고 일기자료로 조선 중기 문인李文樾(1494-1567)은 자신이 직접 쓴 중종 30년(1535)부터 명종 22년(1567) 2월까지의 기록을 통해 『自警編』 유통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남겨두기도 하였다.李文樾 자신 또한 『自警編』 5책을 소장<sup>60</sup>)하고 있으면서, 명종 5년(1551) 6월에는 경주부윤李剛而에게 『自警編』의 인출을 요청<sup>61</sup>)하기도 하였고, 명종 12년(1557) 3월 20일에는 성주목사의 의뢰로 『自警編』의 책제목을 써주기도 하였다. 또한 명종 17년(1562) 4월 20일에는 玄培에게 『自警編』 5책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조 34년(1758) 편찬한 『新增興陽誌』의 기록<sup>62</sup>)에 따르면, 당시 興陽<sup>63</sup>)에는 『自警編』과 『闡義昭鑑』 등 61종의 서적을 고을에서 비치하였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興陽邑의 기록은 고종 8년(1871) 전라도 47읍의 기록을 통합하여 작성된 『湖南邑誌』<sup>64</sup>)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淵泉 洪奭周(1774-1842)가 자신이 읽은 서책에 대한 해제를 단 『洪氏讀書錄』<sup>65</sup>)에서도 『自警編』과 『讀書錄』 등의 책을 열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조 16년(1816) 편찬된 전라도 『金溝縣邑誌』의 冊板條에도 金溝에 소장된 『自警編』 책판의 수량과 보존 상태를 상세히 기록<sup>66</sup>)해 두었다. 더불어, 이 기록 또한 고종 8년(1871)에 작성된 『湖南邑誌』와 고종 32년(1895) 작성된 『湖南邑誌』에 재차 그 내용이 수록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현종 10년(1669) 慶州府尹 閔周冕(1629-1670) 등이 편찬한 慶州府 志誌에 해당하는 『東京雜記』<sup>67</sup>) 『書籍條』<sup>68</sup>)에도 『自警編』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고종 8년(1871)에 작성된 경상도 지역의 각 읍지를 수합하여 정리한 『嶺南邑誌』의 기록<sup>69</sup>)에 따르면, 경북 봉화 지역에 『自警編』과 『近思錄』 등의 서적을 소장한 정황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 4.2 간행 및 인출 현황

조선시대에 『自警編』은 몇 차례 간행 및 인출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별 판본은 간행 후 인출이 여러 번 반복되어 이루어졌을 것이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간행 및 인출 사례는 8차례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활자본 번각을 포함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간행 사례는 6차례 이루어

60)李文樾 撰 『默齋日記』 제7책, 『所藏圖書目錄』의 <槐山冊目>.

61)李文樾 撰 『默齋日記』, 嘉靖 30년(1551) 6월 10일 丁卯.

62)영조 34년(1758) 寫 『新增興陽誌』 『書籍』. “...東坡集自警編世 / 說柳文柳川遺稿宋鑑宋名臣言行錄...”

63)현재 전라남도高興.

64)고종 8년(1871) 寫 『湖南邑誌』 제8책 『順天』, 『樂安』, 『興陽』의 제132장.

65)순조 10년(1810) 寫 『洪氏讀書錄』 下卷 『子部』. “...自警編九卷趙善璿之所作也其書記前言往行...”

66)순조 16년(1816) 寫 『金溝縣邑誌』 제6장 『冊板』. “...秋江集板子一百四十三立內四立朽傷在一百三十九立自警編板 / 子二百七十五立內九立朽傷在二百六十四立...”

67)현종 11년(1845) 刊 『東京雜記』 제3책 권3 『書籍』의 <府藏冊板>. “自警編 活人心方 尙書/諺吐 尙書...”

68)慶州府 소장관, 향교 소장관 등 92종의 서적이 수록됨.

69)고종 8년(1871) 寫 『嶺南邑誌』 제17책 『奉化』 제88장.

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조선시대 첫 번째 간행된 판본으로 실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초주갑인자 활자로 인쇄된 성종 13년(1482) 3월의 간행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판본의 실물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그 해(1482) 2월 梁誠之가 출판을 건의하여 한 달 뒤에 인쇄가 이루어졌고, 이 판은 慶州府에서 중종 14년(1519) 재차 번각되기도 하였다. 慶州府版은 곧 조선시대 『自警編』의 두 번째 간행 사례가 된다.

경주부에서 새긴 판은 중종 38년(1543) 4월 慶州府尹 林鵬(1486-1553)이 紹修書院 등에 보낼 목적으로 다시 인출한 기록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후 명종 17년(1562) 5월에도 당시 慶州府尹이었던 李剛而(1512-1571)가 李文樞의 요청에 응하여 慶州府本을 다시 한 번 인출<sup>70)</sup>하게 되었다. 이는 기록상 慶州府本의 3번째 인출이 되는 셈이다.

한편, 명종 10년(1555)에는 갑인자를 재차 조판하여 조선시대 들어 3번째로 『自警編』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 판은 갑인자가 새겨진 지 오래되고, 닳아서 목활자가 다수 사용된 정황이 조사<sup>71)</sup>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판은 일본의 內閣文庫에만 유일하게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실사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앞선 조사에 따르면, 권수에 方孝孺(1357-1402)의 서문이 첨부되었다<sup>72)</sup>고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명종 10년(1555) 갑인자판의 조판 시 저본이 된 판본은 성종 13년(1482)본이나 중종 14년(1519) 慶州府本이 아닌 중국본임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 검토에서 살펴보았던 사례로, 당시 입수되어 유통되고 있었던 홍무 27년(1394) ‘蜀藩刻本’이거나 또는 弘治 15년(1502)에 새겨진 소위 ‘蜀府翻刻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밖에도 전존하는 실물 자료에 따르면, 광해군 1년(1609)에 평안남도 평양으로 여겨지는 箕城의 秋香堂에서 간행된 판본과 앞서 金溝 지역에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종 5년(1664)의 宋時烈 跋文本 및 숙종 10년(1684) 현종실록자로 간행된 朴世采 跋文本이 더 판각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판본들 중 성종 13년(1482) 판 초주갑인자본을 제외하고 실물 자료가 모두 남아 있으므로, 연이은 전존 판본의 검토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기 판본 외에 조선 후기에는 趙善璫의 『自警編』의 체제와 기술 방식을 모방한 金昌集(1648-1722)의 『後自警編』, 徐宗憲(1656-1712)이 지은 『續自警編』 및 李存秀(1772-1829)의 『廣輔自警編』의 편찬 및 간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판본들은 南宋本 『自警編』 본문의 내용을 번개하였거나, 완전히 새롭게 서술한 후속 저술의 개념으로 본고의 제6장에서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70) 李文樞 撰 『默齋日記』, 嘉靖 41년(1562) 5월 10일 癸巳.

71) 千惠鳳, “內閣文庫의 한국고활자본에 대하여,” 『書誌學』 제3호(1970. 5), 60.

72) 沈隅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92.

## 5. 전존본 및 계통

### 5.1 전존본

#### 5.1.1 [성종 13년(1482) 초주갑인자본] [(10行 17字)]

이 판본은 앞서 약술한 바와 같이, 성종 13년(1482) 2월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같은 해(1482) 3월에 왕명으로 校書館에서 간행된 초주갑인자 활자본이다.

판본의 실물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이 갑인자판을 중종 14년(1519) 慶州府尹 金安老가 번각한 인본이 남아 있어서, 자료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초주갑인자본의 형식을 띤 것으로 여겨지고, 이 판으로 찍은 활자본 실물 자료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의 발굴은 곧 국내에 유입되어 조선 초기 금속활자본으로 출판된 『自警編』의 최초 간행 사례라는 의미와 전존하는 最古本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 하겠다.

#### 5.1.2 중종 14년(1519) 慶州府 刊本 (목판본, 10行 17字)

이 판은 金安老(1481-1537)가 慶州府尹으로 있으면서, 앞서 성종 13년(1482) 왕실의 校書館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판본을 중종 14년(1519) 목판에 뒤집어 새긴 판이다. 국내 소장 기관으로 계명대, 동국대, 고려대 등에 확인되고 있다. 기관의 목록에 따르면, 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自警編 / 趙善璫(宋) 編.

慶州 : 慶州府, 1519(中宗14).

木板本 5卷 5册, 四周單邊, 半郭 23.5×16.8cm, 有界, 半葉 10行 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7×21.8cm, 楮紙

原序 : 嘉定甲申(1224)正月望漢國 趙善璫 序

原跋 : 端平改元(1234) 三月日 善璫 再書

跋 : 正德己卯(1519)端陽月下澣 通政大夫守慶州府尹五原金安老頤叙跋

이 책의 판각 시 저본은 간행 정황으로 보나 金安老의 발문을 통해 보면, 판본의 간행 37년 전인 성종 13년(1482) 印頒된 초주갑인자 활자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초주갑인자본과 달리 권말에는 金安老가 판을 간행하면서 중종 14년(1519) 5월에 적은 발문이 한 장 반 분량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수록된 金安老의 발문<sup>73)</sup>에 따르면, 자신이 慶州府尹으로 부임한 첫 해인 중종 13년(1518) 戊寅부터 판각의 뜻을 지닌 사실과 慶尙監司 韓世桓(1470-1522)과 慶州府에서 자금을 보탠 사실, 실제 간행에 있어서 여러 읍에서 동참하여 판각 3개월 만에 간행을 완료한 사실 등을 밝혀 두기도 하였다.

이 慶州府版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의 宮內廳 書陵部에서 5권 5책의 완질이 소장된 것<sup>74)</sup>과 일본의 尊經閣 문고본<sup>75)</sup>이 조사된 바 있다. 또한 早稻田大學圖書館에 金安老의 발문이 수록된 제5책의 1책 낙질본<sup>76)</sup>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 중 宮內廳 書陵部本과 尊經閣 文庫本은 모두 후대에 四針眼으로 개장되었으며, 書陵部本에는 ‘宮內省圖書印’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궁내청 소장본에도 ‘琴書堂’, ‘箕城趙英傑章’ 등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중종 14년(1519) 새긴 慶州府版의 가치는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自警編』의 판본 중 실물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는 가장 이른 판에 해당하고, 기록으로만 전하는 성종 13년(1482) 간행된 금속활자본의 원형을 그대로 模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간행 시 참고한 版의 저본이라는 관점에서 이 판의 저본은 성종 13년(1482)본이 된다. 하지만 소급하여 추정하면 이는 곧 갑인자판의 저본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갑인자판의 저본은 南宋의 端平 원년(1234) 九江郡齋에서 간행된 초간본 『自警編』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15세기 이전에는 南宋의 初刊本(1234)과 洪武 27년(1394) 새겨진 蜀藩刻本の 2종만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4-15세기 당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판 또한 남송의 초간본과 蜀藩刻本の 2종뿐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홍무 연간의 蜀藩刻本은 方孝孺(1357-1402)의 서문이 붙어 있고, 이는 후술할 명종 10년(1555)판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성종 13년(1482) 甲寅字本과 중종 14년(1519) 慶州府 木板本은 형식면에서 趙善璫의 原序와 原跋 외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고, 텍스트의 내용과 본문의 수록 순서 또한 남송본과 일치한다. 물론, 조판 시 저본이 성종 13년(1482) 甲寅字本에 앞서는 未傳의 고려 목판본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판본과 간행 기록 등을 아울러 판단하면, 성종조 갑인자본이나 경주부 목판본의 텍스트 저본은 端平 元年(1234) 南宋本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둔다.

73) 중종 14년(1519) 刊 『自警編』 제5책 戊卷 제113-114장. “嘗觀趙公善璫自警編語簡而跡備…正德己卯端陽月下 / 通政大夫守慶州府尹五原金安老頤叙跋”

7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 (대전: 同연구소, 2001), 81. 서릉부 분류번호 555-22.

75)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 (대전: 同연구소, 2006), 58.

76) 청구기호: (口)09-03352.

### 5.1.3 명종 10년(1555) 申濩 序文本 (초주갑인자 후기본, 10行 17字)

이 판은 국내에 소장된 기관이 확인되지 않고, 일본의 內閣文庫에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물자료를 접하기 어려워 판본의 특징을 자세히 고증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으나, 판본의 소장처인 일본 內閣文庫 목록<sup>77)</sup>에 따르면, ‘書名：自警編, 階層：內閣文庫/漢書/子の部/, 保存場所：本館, 人名：編者 趙善璫(宋), 數量：9冊, 書誌事項：刊本(朝鮮), 旧藏者：豊後佐伯藩主毛利高標獻上本’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선 조사<sup>78)</sup>에 따르면, 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自警編 8卷 9冊. 趙善璫 (宋)編.

甲寅字混入補字本.

每半葉匡廓 四周雙邊 25×17cm, 有界, 10行 17字, 黑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또한 이를 보완한 조사<sup>79)</sup>에 의하면, 卷次를 10권 9책으로 달리 표기한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제1책의 卷首에는 洪武 27년(1394) 4월 15일에 쓴 方孝孺(1357-1402)의 서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이 판이 홍무 연간의 蜀藩刻本을 저본으로 조판한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밖에도 方孝孺의 서문에 이은 다음 장에는 판을 간행하면서 그 경위를 적은 申濩(1531-미상)<sup>80)</sup>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 판의 간행 시기를 명종 10년(1555) 4월로 비정<sup>81)</sup>할 수 있다.

申濩의 서문<sup>82)</sup>에 따르면, 판본의 간행 1년 전인 명종 9년(1554) 5월부터 중앙의 尹斗壽(1533-1601) 등 大臣들이 『自警編』의 유익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재차 간행하려 도모한 사실, 그리고 申濩 자신이 판본의 校讎를 담당한 점 등의 간행 경위를 밝혀 두었다.

이 판의 전존 사실 및 서지 사항에 대하여 1970년대 千惠鳳 등에 의하여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1991년 문화재 관리국의 조사<sup>83)</sup>에는 누락되었다. 하지만 그 뒤 韓國書誌學會에서 자세한 실사가 수행<sup>84)</sup>되기도 하였다.

77) 請求番号: 308-0048.

78) 千惠鳳, “內閣文庫의 한국고찰자본에 대하여,” 『書誌學』 제3호(1970. 5), 60.

79) 沈暎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91-192.

80) 명종 1년(1546) 增廣文科 병과에 급제, 궁궐 내에서 활동하며 司導寺僉正을 지냄. 그의 활동 기록은 선조 6년(1573)에 柳夢寅을 가르친 기록과 선조 10년(1577) 南孝溫의 『秋江集』을 校讎한 기록이 남아 있음.

81) “…時維嘉靖紀元之三十四年四月上澣宣略特軍虎賁衛行司直申濩謹書”

82) 명종 10년(1555) 刊 『自警編』 제1책 『申濩序』. “…歲在甲寅之陽月大臣建白將刊行濩承之校讎… 宣倣先儒姓氏表出而出之…”

8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編, 『日本所在韓國典籍目錄』 (서울: 同연연구소, 1991).

84) 한국서지학회 編,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일본 국립공문서관 內閣文庫 한국본 목록』 (서울: 同학회, 1998), 46.

#### 5.1.4 광해군 1년(1609) 秋香堂 活字本 (목활자본, 12行 19字)

이 판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책의 낙질이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판 또한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고, 고려대학교 도서관 외 소장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장 기관의 목록에 따르면, 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自警編 / 趙善璫(宋) 編.

木活字本(秋香堂字).

箕城(平壤) : 秋香堂, 光海元年(1609)

零本1册 (全5册) : 四周雙邊 半郭 20.5 ×14.5 cm, 有界, 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白口, 上下3葉花紋魚尾 ; 28.2 ×17.8 cm

刊記: 萬曆三十七年己酉(1609)仲春活字印出于箕城之秋香堂

이 秋香堂 목활자본의 간행과 편찬에 대하여 앞선 연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이 연구<sup>85)</sup>에 따르면, 箕城은 지금의 평양으로 여겨지고 秋香堂은 평양감사가 머무는 本衙 뒤에 설립한 墻門 열 칸의 小屋이라 밝혀 두었다. 또한 이 목활자로 찍은 인본들로는 『蘇齋先生文集』, 『五峰先生集』, 『象村稿』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판은 본문의 마지막 卷次에 해당하는 戊卷의 제1책 영본만 남아 있어서, 책에 수록된 내용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문의 체제만 달리 하였을 뿐, 마지막 권의 본문 대조를 통하여, 누락된 부분들도 앞서 간행된 판본들과 단락별 수록 순서와 본문까지 모두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秋香堂 목활자판은 간행 계통이나 저본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간행 틀을 완전히 벗어난 12행 19자의 조밀한 판형으로 인출되었다. 하지만 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체제의 앞선 판본이나 조판 시 동일한 형식의 저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판 또한 내용면에서 참고한 저본이 있었을 것이나, 판형이나 판식이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은 이미 제작된 활자의 크기에 맞게 조판하게 된 결과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전존본의 수록 내용이 <政事類>와 <拾遺> 부분 및 ‘趙善璫 跋’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판 또한 편성된 분량 면에서는 나머지 앞의 4책이 일실된 5冊本으로 편철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문의 제1책이 남아있지 않아서, 조판 시 내용 저본이 南宋本이었던지, 또는 명종 10년본(1555)과 같은 ‘蜀藩刻本’이었던지 또는 전혀 새로운 판이었던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부연컨대, 전존 판본의 본문 분량은 모두 84장이고, 제83장에 初刊本の ‘趙善璫 跋文’이 그대로 수록된 것 또한 체제 면에서도 남송본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책의 권말 제84장은 이 책의 刊記面에 해당하고, 간기면은 본문을 새기지 않았다. 그리고 간행 기록으로 제11행-제12행의 위로부터 세 글자 공간을 띄운 뒤, ‘萬曆三十七年己酉仲春活字印出于箕 / 城之秋香堂’이라는 문구를 새겨두었다.

85) 尹炳泰 著, 『조선후기의 활자와 책』 (서울: 범우사, 1992), 43.

### 5.1.5 현종 5년(1664) 宋時烈 跋文本 (목판본, 10行 17字)

이 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명대, 이화여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 국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소장 기관의 목록에 따르면, 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自警編. 冊1-5 / 趙善璫(宋) 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顯宗 5(1664)

線裝 不分卷5冊 : 四周單邊 半郭 22.5 ×16.9 cm, 有界, 半葉10行 17字 註雙行,

內向2葉3葉混入花紋魚尾 ; 30.6 ×20.6 cm

跋 : 闕逢執徐(甲辰, 1664)季春日恩洋宋時烈(1607-1689)謹跋

序 : 嘉定甲申(1224)正月望漢國趙善璫序

이 판은 간기가 나타나지 않아 간행된 장소를 명기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기관의 소장 목록에서 간행지를 밝힌 곳이 없음은 물론이다. 판각 장소에 대한 정보는 권말에 첨부된 宋時烈(1607-1689)의 발문에서도 추정하기가 어렵고, 발문에서는 다만 판의 간행 정황만을 비교적 자세히 밝혀두었다. 하지만 앞서 이 판의 간행 장소에 대하여 판목의 소장처와 판목의 수량 및 책판 목록에 기록된 내용 등으로 미루어, 鄭萬和(1614-1669)가 湖南監司로 발령받았던 부임 1년차인 현종 5년(1664) 3월에 임금에게 바칠 목적<sup>86)</sup>으로 전라도 金溝에서 새긴 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판은 본문의 체제 면에서 앞선 판에서 보이는 方孝孺 서문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권수에는 별도로 『宋名臣名儒姓氏號紀』가 7장에 걸쳐 나타난다. 이는 본문의 내용에 일화가 인용되었거나 문장을 지은 인물들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字와 呼稱, 벼슬이나 출신 지역 등을 약기해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문에는 慶州府本과 마찬가지로 原序와 原跋이 수록되었음은 물론, 마지막 장에는 宋時烈의 발문이 3장 분량 추가되어 있다. 발문의 판각 형식은 본문과 달리 7행 11자의 大字로 새긴 특징이 있다.

결국, 이 판은 권말에 첨부된 宋時烈의 발문에서 ‘新刊自警編跋’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으나, 본문의 내용이나 형식은 慶州府本을 그대로 답습하여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권수에 ‘宋名臣名儒姓氏號紀’와 권말에 宋時烈 발문 3장이 추가된 점, 그리고 판심의 大黑口와 魚尾만을 달리 새긴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번각 방식도 이 시기 많이 통용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宋時烈 跋文本은 판각 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텍스트의 출처는 慶州府本을 저본<sup>87)</sup>으로 삼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정은 전존본의 형식적인 면에서 행자수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半郭의 크기와 본문의

86) 현종 5년(1666) 刊 『自警編』 제5책 제114장 『新刊自警編跋』. “鄭公萬和按節湖南有感於 / 宋朝故事即取自警編登梓 / 將以上備乙覽蓋曰此編 / 所錄皆人臣事然豈不曰…”

87) 간행 시 본문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은 이 판보다 앞서 간행된 모든 판본이 될 수 있다. 즉, 앞서 간행된 초주갑인자본, 경주부분, 추향당자본 등이 있으나, 본문의 행자수와 이 판이 번각본인 사실로 미루어 慶州府本으로 추정된다.

분량 또한 慶州府本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개별 글자의 판각 기법에서 慶州府本의 본문과 일일이 대조하면, 慶州府本에서 나타나는 ‘所’, ‘目/月(明)’, ‘其’, ‘以’, ‘於’, ‘能’, ‘定’자 등 초주갑인자의 특징적인 획을 어김없이 그대로 살려내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닐 지라도 간행 당시의 정황 증거로, 慶州府本이 간행될 16세기 초반 활자본 『自警編』은 인본이 투傳하고 있었으며, 이 宋時烈 跋文本의 판각은 그로부터 1세기 이상이 더 경과된 시점이었다는 사실과 호남의 관찰사가 간행을 주도하였다는 점, 그리고 慶州府本이 유독 지방의 서원이나 文士들에게 많이 유포되었던 기록이 나타난다는 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상 현종 5년(1664) 湖南觀察使 鄭萬和가 판각을 주도하고, 宋時烈이 발문을 붙인 『自警編』은 번각본이 틀림없으며, 판각 시 저본은 중종 14년(1519) 慶州府本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가정하라면 이 宋時烈 跋文本은 결국 초주갑인자본의 두 번째 번각본이 되는 셈이다. 물론, 당시에도 그 수량이 적다고는 하였으나, 성종 13년(1482) 初鑄甲寅字 활자본이 유전되고 있었을 것이니, 갑인자 활자본이 이 판본의 텍스트 및 판각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5.1.6 숙종 10년(1684) 朴世采 跋文本 (현종실록자본, 10行 18字)

이 판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고려대, 계명대 등 진존하는 ‘自警編類’의 간본 가운데 가장 많은 판본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는 앞서 약술한 바와 같이 『自警編』의 간행 사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새겨진 판본이기도 하지만, 이 판본의 인출 부수가 많고 활발히 유통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소장 기관의 목록에 따르면, 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新修自警編. 卷1 - 10 / 趙善璫 編.  
金屬活字本 (顯宗實錄字)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肅宗 10(1684)  
20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23.1 × 16.4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29.3 × 20.2 cm  
序 : 嘉定甲申(1224)正月望漢國趙善璫序  
跋 : 歲闕逢困敦(甲子 1684)十二月癸丑潘陽朴世采

먼저, 이 판본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등 일부 소장 기관의 목록에는 版種을 목활자로 판정한 기관이 있으나, 이는 모두 17세기 후반 鑄成된 현종실록자의 誤識임을 밝혀둔다.

한편, 이 판의 체제는 20권으로 세분되어 있고, 본문의 권수에 趙善璫의 <自警編本序>와 연이은 <新修自警編凡例>, <新修自警編目錄> 3장에 이어 본문이 이어진다. 본문에 이은 권말에는 朴世采(1631-1695)의 跋文 한 장이 수록되었으며, 이를 끝으로 모든 내용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소장

기관의 목록에 따르면, 전존하는 판본의 본문 구성이나 내용은 20권으로 동일하나, 외형상 표지를 입힌 編綴은 6책본부터 9책본까지 다양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본의 수록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이 판은 결국 기존 『自警編』의 增補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내용은 권두에 수록된 朴世采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凡例』와 권말에 첨부된 자신의 발문<sup>88)</sup>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自警編』은 門과 類가 자세하지 못해 박세채 자신이 본문의 增刪을 통해 간소화할 것은 줄이고, 또한 朱子の 『名臣錄』에서 누락되거나 더할 것은 추가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눈을 밝게 하고자 함을 밝혀 두었다.

결국 완성된 판본에 따르면, 이 『新修自警編』은 대분류로 拾遺를 제외한 學文類, 操修類, 齊家類, 接物類 등 7개의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대분류에 따른 소주제에서는 대폭적인 가감 작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增刪에 편자의 의견이 가미되거나 인용문 자체의 수정 작업은 가해지지 않았다. 다만, 인용문의 더 가져오거나 불필요한 인용문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주제별 수록 분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增刪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실은 앞서 편성된 7개의 대분류별로 편성된 소주제의 항목 간 이동도 과감히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즉, 대분류로 操修類에 있던 소주제 ‘儉約’을 齊家類로 옮겨버린다거나 또는 두 개의 소주제를 하나로 합쳐버리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新修自警編』에서는 책의 卷次에서도 기존의 5권본에서 20권본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한 권에 속해있던 學文類나 出處類 등이 각각 2권 또는 3권에 걸쳐 세분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분에는 편자가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소주제나 수록된 일화가 중복되거나 명쾌하게 단락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라 『新修自警編』은 앞서 간행된 『自警編』에서 제시된 57개의 소주제에서 ‘定力’, ‘清廉’, ‘無嗜好’, ‘謹言行’ 등의 소주제를 삭제하거나 또는 學文類, 出處類 등 7개의 대주제에 따른 항목 간 이동을 통해서 소주제는 42개로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전체 문헌의 개수는 기존 『自警編』이 1,121개였던 것에 비해 1,369개로 상당수 늘어났다. 그리고 전존 판본을 살펴볼 때, 본문의 수록 張數도 기존 『自警編』의 경우, 행자수는 10행 17자본이 序跋을 제외한 순수 본문 분량이 541張인데 비해, 이 『新修自警編』에서는 한 면당 글자 수도 많은 10행 18자본임에도 609張으로 오히려 60장 이상 본문의 張數가 늘어났다.

결국 『新修自警編』은 朴世采가 주도한 增刪 작업<sup>89)</sup>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한 『自警編』의 증보판이라는 결과물로 간행되었던 셈이다.

88) 숙종 10년(1684) 刊 『新修自警編』 제9책의 『跋』 제8행-제10행. “...自異於彼耶第惟 / 此編門類不詳意義頗雜多未盡正者竊不自自 / 揆輒爲增刪而疏淪之以附晦翁名臣錄 / 之餘義庶幾觀者心開眼明益進實功自...”

89) 增刪의 작업에 참여한 학자나 관료에 대한 기록은 알 수 없다. 다만, 권말의 발문에 따라 朴世采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이 판의 편찬 당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이 『新修自警編』판에서는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앞선 판들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즉, 인용 문장의 출처에 대하여 밝힌 빈도가 앞선 판이 한 권당 4-5개에 불과하다면, 이 판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인용서의 출처를 「墓誌」, 「筆錄」, 「別錄」, 「傳」 등으로 약기한 것이 많아서, 그 출처를 한 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인용서에서 출처를 밝힌 서명보다 앞선 판본에서 동일 문장이 수록된 사례들도 여러 종 조사되고 있으므로, 수록 문장의 원래 出處에 대한 접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두 판본 간 본문의 이동 양상에 대한 비교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된 인용 문헌의 내용이나 출처 등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한다.

## 5.2 판본의 계통

판본의 계통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시대 간행된 『自警編』은 광해군 1년(1609) 秋香堂 활자본이 12행 19자본이고, 숙종 10년(1684) 朴世采 발문본이 10행 18자본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종 판본은 10행 17자본이다. 그리고 수정 증보판의 개념으로 간행된 朴世采 발문본을 제외하면, 본문의 내용이나 수록된 단락의 순서 또한 5종 모두 동일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南宋本을 조판 시 내용 저본으로 삼은 성종 13년(1482) 초주갑인자본을 위시하여, 단일 계통으로 간행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명종 10년(1555)본이 홍무 27년(1394) 蜀藩刻本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蜀藩刻本 또한 권수에 方孝孺의 서문이 붙은 것을 제외하고, 본문의 체제와 행자수 및 南宋本에 새겨진 刻手名까지 그대로 판각한 遞修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함은 전술한 바<sup>90)</sup>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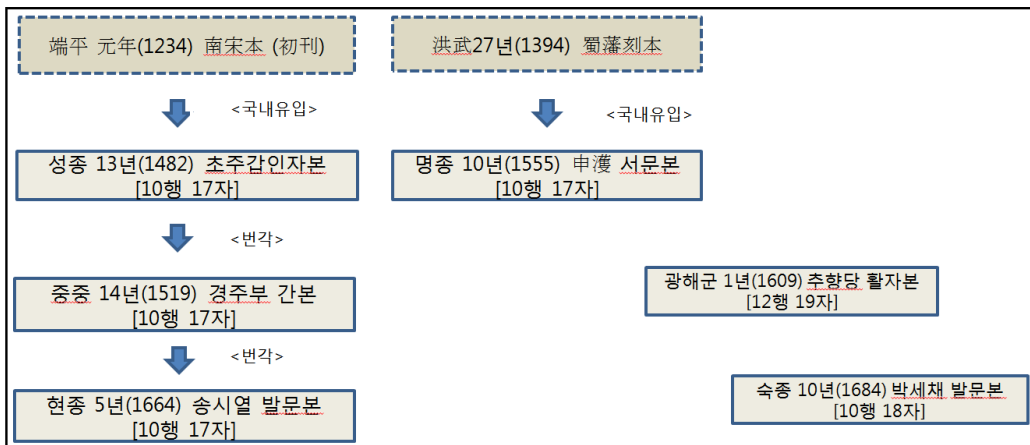
반면, 秋香堂 활자본의 본문 틀이 12행 19자로 기존의 판본들과 다르게 조밀한 판식으로 간행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책의 크기에 맞춰 활자의 크기가 갑진자를 닮게 새긴 비교적 작은 활자 크기로 인한 조판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간행 시 저본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직관할 수 있다. 그리고 숙종 10년(1684) 간행된 朴世采 跋文本 『新修自警編』은 기존 『自警編』의 증보판 개념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통으로 간주된다.

한편, 17세기 중엽 송시열 跋文本을 끝으로 이후 『自警編』이라는 서명으로 더 이상 간본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가 주목된다. 이는 17세기 말 朴世采의 『新修自警編』이 현종실록자로 간행되고, 내용상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自警編』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였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후 한동안 朴世采가 간행을 주도한 顯宗實錄字本 『新修自警編』이 두루 유통된 정황이 드러나고, 현재까지 전존하는 판본들의 수량을 살펴보다라도, 모든 ‘自警編類’를 통틀어 『新修自警編』 판본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廣輔自警編』, 『後自警編』,

90) 넓은 의미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수록 순서가 같고, 10행 17자의 동일한 형식을 유지한 단일 계통으로 간주할 수 있음.

『續自警編』 등도 함께 유통되었으나, 이 판본들은 우리나라에서 따로 지은 저술들로 책의 본문이 우리 선현들의 내용으로 완전히 새롭게 채워진 것이어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新修自警編』은 송나라 趙善璫의 『自警編』 내용을 그대로 전승하고 보완하였다는 측면과 조선 후기 새로운 계통의 『自警編』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본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판본의 계통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 국내에서 간행된 『自警編』의 계통

## 6. 후속 저술의 편찬 및 유통

상기 판본 외에 조선 후기에는 趙善璫의 『自警編』 체제와 기술 방식을 모방한 후속 저술들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 저술들은 모두 조선 후기의 학자들이 지은 것으로, 체제와 형식은 宋나라 『自警編』을 모방하였으나,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저작이나 일화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채워졌다.

### 6.1 [숙종 46년(1719) 金昌集 編] 『後自警編』(필사본, 서문 추정)

흔히 『國朝自警編』으로도 알려진<sup>91)</sup>이 책은, 金昌集(1648-1722)이 그의 말년에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문인 申靖夏(1680-1715)가 쓴 서문을 살펴보면, 夢窩公 金昌集이 쓴 책의 정식 명칭은 『後自警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송나라의 『自警編』을 모방하

91) 閔遇洙 著 정조 23년(1799) 刊 『貞菴集』 권11 『墓誌』, <領議政忠獻金公墓誌銘>. “...然嘗自視傲然所著國朝自警編六卷文集若干卷藏于家...” 外 金昌集이 지은 저술은 ‘國朝自警編’이라는 명칭으로, 그의 문인들의 문집에 기록된 사례가 많음.

여 우리나라 역사와 家傳이나 稗發雜記의 類를 취하여, 수년 동안 축적한 뒤 책으로 완성하였다<sup>92)</sup>고 밝혀 두었다.

이 책 또한 전존본은 3권 3책본에서 5권 5책본, 6권 12책본, 12권 6책본 등 본문의 편철은 다양하게 전하고 있으며, 전존하는 서책은 모두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 필사본의 특성상 행자수는 10행 22자, 12행 20자 등 다양하게 전하지만, 이본의 검토 결과 수록된 본문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존본에서는 본문의 편집 순서를 약간 달리하기도 하였고, 분량 편성의 이유로 冊數를 달리하여 편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록된 본문의 내용은 대분류 없이 ‘學文’, ‘見識’, ‘器量’, ‘檢身’ 등 60개의 소주제로 편성하였다. 남송본 『自警編』이 學文類, 操修類 등 8개의 대분류 아래에 57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것에 비해, 오히려 소주제는 3개가 더 많다. 그리고 본문의 출처에 대하여 『牛溪集』, 『栗谷外集』, 『東儒錄』 등 대부분의 인용문장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물론, 일부 문장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있다. 그에 따른 책의 전체 분량은 소장 기관의 異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완질을 기준으로 350여 장 안팎이 남아 있다. 이는 판본으로 간행된 『自警編』이 540여 장, 『新修自警編』이 610여 장인 것에 비하여 본문의 수록 분량은 적은 편이다.

한편, 이러한 인용문헌과 등장인물에 대하여 6권 6책본으로 편성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sup>93)</sup>에 따르면,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後自警編』에서는 인용 문헌과 등장인물을 요약하여 수록한 바, 권수에는 앞서 판본으로 간행된 『自警編』의 방식을 본떠 ‘國朝名臣名儒姓氏號紀’를 20장 분량으로 필사하였다. 여기에는 일화와 문장이 인용된 金時習, 成三問, 梁誠之, 金守溫 등 372인의 이름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연이은 5장 분량의 ‘引用諸書’에서는 『國朝寶鑑』, 『懲毖錄』, 『景賢錄』 등 88종의 서적을 밝히고 있어서, 저자 金昌集이 『後自警編』을 편찬하기 위해 섭렵한 폭넓은 독서력을 살필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의 정확한 편찬 시기는 金昌集의 自序나 跋이 없어서 명확히 판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金昌集의 문집에 수록된 행장이나 年譜 또는 다른 문집 등의 기록에서도 그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전존하는 여러 이본의 권수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李頤命(1658-1722)의 서문 작성 시점이 숙종 46년(1719) 己亥 8월이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頤命은 김창집의 문인으로 찬술이 완성된 뒤, 서문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보다 빠른 기록으로 역시 金昌集의 문인인 申靖夏(1680-1715)의 序文이 수록된 사본<sup>94)</sup> 또한 전하고 있으니, 그 내용에 따르면 『後自警編』의 찬술은 숙종 41년(1715) 4월 이전에 완성되었던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

9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A1504-1-1-6) 『後自警編』 卷首 수록 『申靖夏序』. “...夢窩公有自著爲巾衍之莊者曰後自警編其 / 門類編次一倣宋自警編而其事實則自夫國史家傳 / 稗發雜記之類盡取之積年之勤而書成累當書 / 之始成也...”

93)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BC古朝17-22.

94) 19세기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BA1504-1-1-6) 『後自警編』의 제1책 『申靖夏序』.

그 밖에 『後自警編』의 소장 기관은 고려대, 연세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사본의 서명이 고종 5년(1868) 작성된 『西庫書目』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다. 즉, 이 서목에 따르면, ‘後自警編 五卷 鮮本 金昌集輯’이라 되어 있어 규장각의 서고에 장서를 비치해 둔 정황을 알려주고 있다.

## 6.2 [18세기 초 徐宗憲 編] 『續自警編』

이 책은 實錄廳 郎廳이자 『顯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徐宗憲(1656-1712)이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찬 후 간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록 상 밝힌 家傳 필사본 자료조차 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의 정확한 편찬 시점이나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續自警編』의 편찬에 대한 기록으로 撰者의 문인이었던 崔昌大(1669-1720)가 쓴 徐宗憲의 묘지명에서 그는 평소 『自警編』을 즐겨 읽었고, 스스로 『續自警編』 5권을 지어서 집에 보관하였다<sup>95)</sup>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徐宗憲과 같은 實錄廳 郎廳이자 문인이기도 하였던 李德壽(1673-1712)의 문집<sup>96)</sup>에도 나타난다. 徐宗憲은 성품이 책을 좋아하여, 일찍이 『續自警編』을 지어서 집에 간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두 문집의 기록으로 보아 당시에도 그의 저술이 책으로 간행되지 않은 정황은 충분히 짐작되기도 한다.

한편, 해당 문헌에 대한 개별 기관의 목록 조사 시 ‘續自警編’으로 검색되는 책들은, 모두 진술한 金昌集의 『後自警編』의 誤識이다. 즉, 책의 표지 서명이 ‘續自警編’으로 쓰여 있지만, 실제 본문의 내용은 모두 『後自警編』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저자를 잘못 표기하기도 하였고, 문헌을 대상으로 한 해제에서도 잘못된 기술이 드러나기도 한다.

## 6.3 [19세기 초 李存秀 編] 『廣輔自警編』

『廣輔自警編』은 李存秀(1772-1829)의 말년 편찬서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책 또한 발문이나 寫成記가 없고, 編者로 여겨지는 李存秀의 年譜나 行狀 또는 다른 門人들의 기록에서도 책의 명확한 편찬 시점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 책의 편찬에 관한 기록으로, 당시 좌의정이었던 李存秀와 함께 활동한 領議政 鄭元容(1783-1873)이 작성한 李存秀 「行狀」<sup>97)</sup>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책의 편찬 시점은 그의 말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三經」과 『性理大全』

95) 영조 1년(1725) 刊 『昆侖集』 권18의 「墓碣銘」 <觀察使徐公墓碣銘>. “...好觀書尤喜自警編行止不去手嘗語諸子曰士君子行己當以是爲法哀粹東賢事行纂成續自警編五卷藏于家...”

96) 18세기 寫 『西堂私載』 권5 「神道碑銘」 <江原道觀察使徐公神道碑銘>. “...性嗜書未嘗一日釋手所著續自警編及詩文若干卷藏于家公既無求於世...”

97) 鄭元容 著 高宗 32년(1895) 刊 『經山集』 권18 「行狀」의 <左議政李公行狀>. “...遂哀成一書上輯易詩書三禮之文 / 以及乎庸學語孟孝經之章句下綴性理大全濂洛 / 諸賢之說與大學真衍丘補宋名臣言之錄採其 / 切要之語彙分類聚又採本朝先賢之言以附焉又 / 於宋人自警本編精抄其格言至論付之編末名之 / 曰廣輔自警編其於治己師古之方...”

및 『濂洛風雅』 등의 서적에서 선현들의 문구를 발췌하여 『廣輔自警編』을 완성한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 두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鄭元容이 작성한 李存秀 『行狀』의 문구는 전존하는 규장각 소장 필사본 『廣輔自警編』의 서문에도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규장각에 소장된 『廣輔自警編』이 李存秀가 편찬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기록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장각 소장본이 편자 李存秀의 친필본인지 여부는 확정할 수가 없으며,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후대 필사본이 아닌 편찬자가 활동한 當代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내용은 권두의 서문<sup>98)</su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退溪, 栗谷, 尤庵의 말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採錄하고, 宋나라 『自警編』에서도 일부 格言이나 至論을 뽑아서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廣輔自警編』의 전존본은 규장각에 보관된 25권 12책 완질본이 유일하다. 책의 본문 구성은 권두의 <總敍>와 <引用書目>에 이어 <修己類>, <出處類>, <識量類> 등 7개의 類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10행 20자의 해서체로 정서되어 있다. 또한 25권으로 된 본문의 분량도 1,258장에 달하여 전존하는 모든 ‘自警編類’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남아 있다.

한편, 특기할 점은 이상과 같은 3종의 후속 저술들은 하나같이 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당시에 朴世采의 『新修自警編』이 유통되고 있었던 정황은 차치하고서라도, 간행의 필요성이나 찬술의 완성도보다는 결국 간행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속 저술들의 분량 또한 방대하고, 앞서 간행된 『自警編』 판본들이 모두 중앙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거나, 慶州府使나 湖南觀察使 등이 官力의 도움과 비용 문제를 해결한 뒤 간행에 이른 사례로 비추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끝으로 이러한 3종의 후속 저술 가운데 유독 『後自警編』은 이본이 많이 남아 있고, 편찬 과정과 인용 문헌에 대한 출처 및 전존본의 선후 관계 등을 풀어낼 관련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7. 맺음말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自警編』 편찬 및 간행 사실을 사료와 전존 판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13세기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이 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유통되었던 정황 및 간행 관련 사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중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6차례 간행된 개별 판본에 대하여, 본문의 계통이나 체제 및 수록 내용 등 판본의 특징적인 면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러한 검토 결과 『自警編』은 조선 초기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이후 17세기 말까지 꾸준한 빈도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朴世采의 증보판 『自警編』으로 알려진 『新修自警編』이 그 수요를 대변하면서, 官이나 私家를 막론

98) [19세기 초 필사 추정] 『廣輔自警編』 『總敍』 제2장 제6행-제7행. “...語彙分類聚又採本朝 / 之退陶栗谷尤庵三先生之言以附焉嗚呼是書 / 也...”

하고 주로 유통되었던 정황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판본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조선 후기 私家를 중심으로 『自警編』의 편제를 모방하여 우리나라의 사례로 본문을 채운 후속 저술들도 속속 등장하고 유통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인지된 사실로는 먼저, 조선 초 成宗朝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自警編』의 발간에 대한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 판본은 국내의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출현할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현재까지 판본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곧 『自警編』의 국내 유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출판 사례일 뿐 아니라, 남송 초간본의 내용과 체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국내 『自警編』 판본의 유통이나 간행 계통에 있어, 그 시작점이 되는 의미 있는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밖에 중국의 『自警編』 간행 사례 및 판본의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출판 시기가 명확하고 소장처가 알려진 17종 이상의 자료가 나타날 만큼 중국에서도 잦은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 판본들은 실물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간본의 계통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여력이 허락된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판본의 계통이나 선후 관계 등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그리고 『自警編』의 후속 저술로 국내에서 이본이 많이 유통되었던 『後自警編』에 대한 관련 조사 또한 병행되어, 이 분야 연구의 체계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工藤一郎 著. 『中國圖書文獻史攷』. 東京: 明治書院, 2006.
- 久保田量遠 著. 『中國儒道佛三教史論』. 東京: 國書刊行會, 1986.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 대전: 同연구소,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目錄』. 대전: 同연구소, 2001.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羅樹寶 著. 『中國古代圖書印刷史』. 長沙: 岳麓書社, 2008.
- 羅偉國·胡平 共編. 『古籍版本題記索引』. 上海: 上海書店出版, 1991.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清州古印刷博物館, 2002.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모리스 꾸랑 著, 이희재 역. 『韓國書誌』. 서울: 一潮閣, 1994.
- 姚伯岳. 『中國圖書版本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 釋尾春菂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沈喁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楊玲 著. 『宋代出版文化』. 北京: 文物出版社, 2012.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윤병태 著. 『조선후기 활자와 책』. 서울: 범우사, 1992.
- 李明杰. 『宋代版本學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6.
- 李瑞良. 『中國出版編年史』. 福州: 福州人民出版社, 2004.
- 李致忠. 『古籍版本學概論』.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0.
- 李致忠. 『中國典籍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
- 任繼愈 主編. 『中國版本文化叢書-宋本』.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長澤規矩也. 『宋元版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83.
- 前間恭作. 『朝鮮冊譜』 第一冊-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靜嘉堂文庫 編. 『靜嘉堂文庫宋元版圖錄』 2冊(圖版篇·解題篇). 東京: 汲古書院, 1992.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趙吉惠 著, 김동휘 옮김. 『中國儒學史 1·2·3』. 서울: 신원문화사, 1997.
- 張秀民. 『中國印刷史 I·II』.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6.
- 曹之 著. 『中國古籍版本學』.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5.
- 曹之 著. 『中國古籍編撰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5.
- 周寶榮 著. 『宋代出版史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3.
- 周寶榮 著. 『走向大眾: 宋代的出版轉型』. 北京: 中國書籍出版社, 2012.
- 中國國家圖書館·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 『第一·二·三批 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26冊.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8-2012.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한국서지학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韓國本 目錄』. 서울: 한국서지학회, 1998.
- 黒田亮 著.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1940.

## 2. 논문

- 배현숙. “朝鮮朝 書堂의 書籍 刊行과 守藏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5집(2006. 12). 5-40.
-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제52집(2012. 9). 249-293.

- 옥영정. “조선 사신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書誌學研究』 제61집 (2015. 3). 5-29.
-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31집(2005. 9). 297-321.
-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301-330.
- 禹貞任.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 田建平. “宋代書籍出版史研究.” 博士學位論文. 河北大學大學院. 2012.
-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 유탣일. “朱子書節要의 편찬 유통과 朴光前의 위치.” 『퇴계학과 한국문화』 (2003. 12). 97-133.
- 유탣일. “영남지방 현존목활자와 그 인쇄용구.” 『奎章閣』 제3호(1979. 12). 31-56.
- 張麗娟. “宋代儒家經書版本的文本類型.” 『南陽師範學院學報』 第12卷 第7期(2013. 7). 59-62.
- 千惠鳳. “內閣文庫의 한국고활자본에 대하여.” 『書誌學』 제3호(1970. 5). 39-81.

### 3. 참고 웹사이트

- 『三國史記』 <http://www.koreaa2z.com/>
- 『三國遺事』 <http://www.koreaa2z.com/>
- 『高麗史』 <http://www.koreaa2z.com/>
- 『朝鮮王朝實錄』 <http://www.koreaa2z.com/>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日省錄』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
- 『內閣日曆』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
- 『增補文獻備考』 <http://www.krpia.co.kr/pcontent/>
- 『新增東國輿地勝覽』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 한국고전적중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